

# SK그룹, 채용인원 10% 소외계층 선발

## 3년간 일자리 4320개 창출 ... 장애인·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 채용

SK그룹은 최근 계열사 CEO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2005년부터 3년간 전체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서 뽑는 등 소외계층 일자리 4230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사회공헌 장기계획을 마련했다고 5월17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소외계층의 자활 및 사회통합 지원, 사회·지역별 균형발전, 사회구성원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방향을 세우고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환경문제 해결 ▲교육/장학 ▲문화/예술 장려 ▲지역사회 지원 ▲임직원 자원봉사 등 7개 중점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계열사별로 사업적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4230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10% 가량을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대학 특별전형 합격자 출신으로 뽑는 <소외계층 채용 할당제>를 도입한다.

또 연령 만기로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420명에게 교육비와 급여, 생계지원비를 제공하면서 SK네트웍스의 경정비 사업인 스피드 메이트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우수인력은 정식직원으로 선발키로 했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락 제조기업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콜센터 장애인 채용, 시설 안전점검원 채용, 무료 IT교육센터 확대운영,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SK그룹은 사회복지, 환경문제 해결 등 나머지 6개 중점과제 수행을 위해서도 3년간 26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화학저널 2005/05/18>